

'온마을 돌봄밥상' 전북 유일 선정

진안군, 특별교부세 7000만원 확보... '진안고원 365일 흰구름 온기밥상' 추진

진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온마을 돌봄밥상' 공모사업이 전북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온마을 돌봄밥상' 사업은 먹거리를 매개로 주민 고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다.

마을 단위 공유주방 조성 및 개선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과 안부 확인, 공동체 돌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으며, 인구감소지역 여부와 사회적 고립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전국 17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진안군은 백운면을 대상지로 신청한 '진안고원 365일 흰구름 온기밥상' 사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유주방 기능을 보강하고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



진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온마을 돌봄밥상' 공모사업이 전북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7천만 원을 확보했다. 사진은 백운면 돌봄밥상 모습.

동조합(조합장 이남금)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먹거리 나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반찬 나눔과 안부 확인, 주민 참여형 돌봄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발굴하고 촘촘한 마을 돌봄 체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백운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웃 간 교류

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돌봄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체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6월 중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예정이며, 진안군은 사업계획 보완과 행정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여름철 자연재난 선제 대응

최훈식 장수군수, 재해 우려지역 현장점검 나서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9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피해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최 군수는 장계천 홍수정보제공지점과 동정마을 인명피해 우려지역, 당골저수지, 계북면 어진리 산사태 취약지역 응급복구 현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상황을 직접 살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하천 준설 상태와 배수시설 관리 실태를 비롯해 주민 긴급대피 연락체계 구축 여부, 비상대처 계획 수립 상황 등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전반을 면밀히 확인했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관리 현황과 응급복구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최훈식 군수는 "여름철 자연재난은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해 취약지역의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계부서에서는 선제적인 예방대책과 안전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집중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호우와 태풍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한 상황관리와 시설물 점검 등 군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시군 '대상'

장수군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6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군부 1위에 해당하는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결산 기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했으며 세외수입 징수율과 징수액 증감률, 연년도 과태료 징수율, 세외수입 우수사례 제출 및 발표 실적 등 9개 분야 11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장수군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섰고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 관리와 효율적인 세입 운영에 힘써왔다.

특히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체납액 관리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추진 등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군부 1위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장수군은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조정 교부금 700만 원의 시상금을 확보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국 교원 대상 '태권도 직무 연수'

태권도진흥재단, 25일까지 신청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교원 특수 분야(태권도) 직무 연수' (이하, 태권도 직무 연수) 참가 신청을 이날 25일까지 받는다.

2026년 상반기 태권도 직무 연수에는 기초 과정 40명과 심화 과정 20명 등 총 60명을 선발한다. 태권도 직무 연수는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기초 및 심화 과정으로 운영하며 각각 2박



3일 총 15시간 동안 태권도 기본 기술과 품새, 겨투기, 호신술 등의 교육을 실습 위주로 진행한다.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참가 교원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교원들의 의견을 차후 직무 연수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태권도 지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태권도 2품 및 2단 보유 교원은 기초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심화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직무 연수 후 태권도 수업 실행 계획, 교내 태권도 프로그램 도입' 등 정량 및 정성 평가를 거쳐 연수 대상자를 선발한다. 도서 벽지와 소규모 학교 등 교육 여건이 취약한 학교 소속 교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무주군,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성료

무주군이 지역 내 기관과 연계해 추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활력 증진과 군민의 심신 치유를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진행됐으며, 안성면과 적상면 노인복지센터 2곳, 무주읍과 안성면 지역아동센터 2곳 이용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기관별로 총 8회에 걸쳐 운영됐다.

주요 내용은 도자기 풍경 만들기와 무주산 농산물을 활용한 블루베리잼 및 크럼블 만들기, 시금치·감자·완두콩 재배 및 수확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사업에는 지역 내 우수 치유농장인 안성면 '정원산책'과 '소호팜하우스', 적상면 '외우체협농장' 등 3개 농장이 참여해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무주=손흥기 기자



마지막 회차에서는 행복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와 무주 만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수확한 농산물로 비빔밥을 만들어 함께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무주=손흥기 기자

이경영 진안 부군수, 물놀이 안전관리 현장점검 나서

진안군은 다가오는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관내 주요 물놀이 지역을 대상으로 인명피해 제로(Zero)화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경영 부군수는 10일 관내 하천·계곡 등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물놀이 관리지역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인명구조함, 구명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의 관리 상태와 안전 표지판·현수막 등의 시인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 배치될 안전 관리요원들의 근무 환경 및 비상연락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험 구역 내 안내시설 설치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한편,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경찰서, 교령차 교통 사망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진안경찰서(서장 심은영)는 6월 한 달간 어르신 안심 교통안전 홍보와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 집중관리 특별기간에 들어갔다.

매년 6월은 도내는 물론 진안군에서도 교통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기간이다.

이에 따라 진안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진안공용버스터미널 앞에서 관내 유관기관들과 함께 교령차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진안군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물과 진단지를 배부하며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힘을 모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장학숙, 전문 셰프와 함께하는 '특식 이벤트'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진안장학숙(진주시 덕진구 인후동)은 지난 9일, 입학생들을 위한 전문 셰프 초청 '특식 이벤트'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학업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입학생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장학숙 식당은 일일 고급 레스토랑으로 탈바꿈했다.

초청된 전문 셰프는 현장에서 직접 조리한 부드러운 감자스프를 시작으로, 쫄면 가득한 그라탄파스타, 매콤달콤한 상하이 파스타, 상큼한 열대과일샐러드 등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트렌디하고 풍성한 메뉴를 선보였다.

전문 셰프가 현장에서 요리하고 직접 배식까지 참여해 입학생들과 친밀하게 소통하며 행사 분위기를 높였다. 또 진안장학숙 조리사들과 함께 조리 노하우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